

우리나라 간호계 석·박사학위 논문분석 -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김명자* · 이명선** · 이미형*** · 이화인***

I. 머릿말

간호학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기초로 하는 응용과학이다. 간호학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이론적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고유 지식체계를 근거로 하여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 보호, 증진시킴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에 이르도록 돕는 실용적 학문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따라서 이러한 간호학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지식체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야한다(Meleis, 1985; Chinn & Kramer, 1991).

간호 지식체를 발굴하여 세련화하고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간호연구활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특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간호연구 활동이 1920년대에 대학과정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발전 계기도 1955년의 대학과정 인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62년의 석사학위 과정 개설이 기폭제가 되었다.

1962년 '대한간호'에 첫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여러 형태의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1970년 대한간호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대한간호학회지'가 창

간 된 이후 활발하게 간호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간호학의 학부과정에 간호연구 과목이 개설되어 간호학 발전의 또 다른 계기를 이루었다.

한국의 간호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3종류의 학술지에 게재된 276편을 분석한 연구(조결자, 1977), 1962년부터 1983년까지의 학위논문들을 조사한 연구(오가실, 1987), 1970년부터 1982년까지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김현수, 1983), 1970년부터 1991년까지 발표된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및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간호계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영경, 1992).

198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비실험연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실험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위논문과정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1980년 후반부터 질적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가실 등, 1992). 이제 2000년대를 향하는 시점에서 볼 때, 간호연구는 실무적용을 위한 연구로의 전환점에서 있다. 간호연구의 결과가 이론과 실무에 적용이 되어 간호학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이나 처방적 연구 수준인 실험연구의 경우, 윤리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Polit & Hungler, 1985; Burn & Grove, 1987).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수원여자전문대학 부교수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이래 30여년이 경과된 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중 실험연구를 분석 해보는 것은 간호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이론 검증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Buckwalter & Mase, 1989) 간호지식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위논문이 갖는 공인성과 학위과정에 따른 깊은 학문적 탐구와 새로운 관심이 논문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 논문 중에서 실험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험연구의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1962년에 간호학 석사과정, 그리고 1978년에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된 이래 1991년 8월 말까지 30여년에 걸쳐 발표된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중 실험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170편의 실험논문중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논문은 석사 124편, 박사 26편으로 총 150편이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영역

연도별 실험논문의 추세와 대학별, 대학원별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분석기준은 선행연구(박성애, 1992)와 문헌(이은옥 등, 1992; Meleise, 1991)을 참조로 하여 예비분석을 한 후 결정하였다. 설계유형, 연구대상, 표본의 크기 및 추출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통계분석 방법, 내적타당도, 외생변수 및 실험상황의 통제, 문제진술 및 가설 설정, 연구의 결과 및 제언, 연구대상자, 유용성, 간호중재(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후 저자들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분류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일반적 특성과 연구방법 및 연구영역에 따른 분석기준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SPSS/PC를 이용하여 백분율로 처리하여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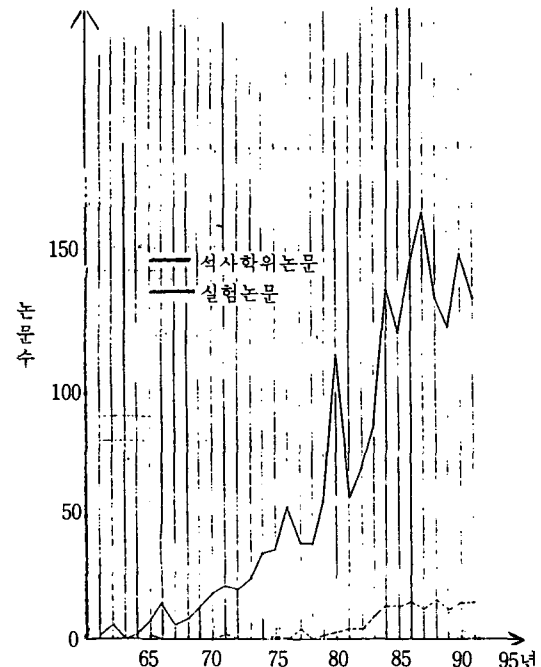
III. 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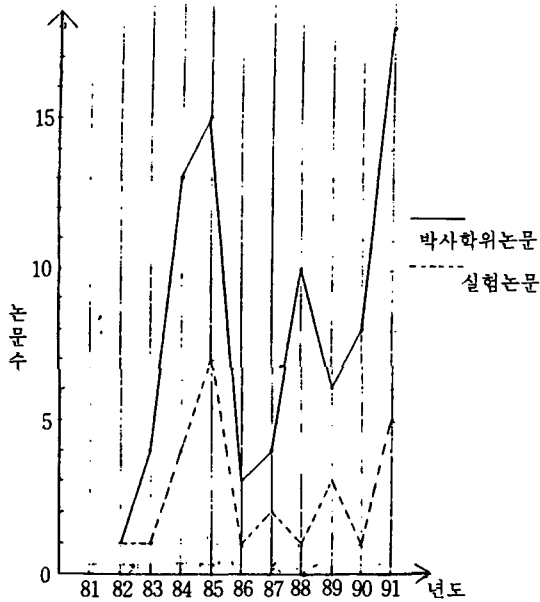
1) 연도별 추세

간호학의 학위과정이 개설되면서 30여년동안(1962~1991년)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은 총 1967편이었으며 그중 실험논문은 170편으로 전체논문의 8.6%였다. 이들중 석사학위 논문은 1885편이었으며 142편이 실험논문으로써 전체 석사학위 논문의 7.5%를 차지했으며, 82편의 박사학위 논문중 28편(34.1%)이 실험논문으로 분석되어 석사논문보다 실험 논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험논문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석사학위 논문은 1983년을 기점으로하여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논문의 증가 추세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그림 1-1).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의 증가 추세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1-2).



〈그림 1-1〉 연도별 석사학위논문과 실험논문의 수



〈그림 1-2〉 연도별 박사학위논문과 실험논문의 수

2) 대학원별 분포

대학원에 따른 실험논문의 비율을 보면 B 대가 12.8%로 가장 높았으며 E 대가 12.0%, C 대가 10.7%, Y 대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 대는 학위논문 총수가 457편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험논문 수는 3.7%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1-1).

〈표 1-1〉 대학원별 실험논문 분포

	논문총수	실험논문수(%)
B대	70	9(12.8)
C대	75	8(10.7)
CN대	85	8(9.4)
E대	234	28(12.0)
H대	82	4(4.9)
J대	66	6(9.1)
JA대	47	4(8.5)
JS대	61	2(3.3)
K대	70	3(4.3)
KB대	173	13(7.5)
KH대	118	5(4.2)
S대	457	17(3.7)
Y대	421	43(10.2)
계(%)	1967	150(7.6)

2. 연구방법

1) 실험설계의 분석

(1) 설계유형

설계유형은 독립변수에 가하는 통제정도에 따라 순수 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원시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로 구분하였다. 다음단계로 순수 실험설계는 무작위 통제군 사후실험설계, 무작위 통제군 전후실험설계, 복수 통제군 실험설계로, 유사실험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모의대조군 전후설계로, 원시실험설계는 단일군 사후설계, 단일군 전후설계, 시계열 전후설계, 전향적 코호트 전후설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표 2-1) 유사실험 설계가 77.4%로 주를 이루었으며 원시실험설계는 18.7%, 순수실험설계는 3.4%였다. 이는 실험적인 연구방법이 원인적 가설 검증에 가장 뛰어난 연구이지만 간호연구의 경우, 건강문제가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실험조작을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사실험설계중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 공히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각각 41.1%, 69.2%로 가장 많았다. 원시실험설계는 석사논문이 20.9%, 박사학위논문에서는 7.6%였다. 순수실험설계는 전체논문중 3.4%로서 동물이나 균배양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었다. 인과적 관계가 추론 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경우 실험적 조작을 가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고 또한 그 변화정도를 측정할 때 간호학의 경우 정상상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바 측정도구상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실험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대상군 설정

연구대상군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논문이 105편(70.0%), 실험군만을 설정한 논문은 24편(16%)이었다. 석사논문의 경우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석사논문이 84편(67.7%), 실험군만을 대상으로한 경우가 23편(18.5%)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3.8%)뿐으로 학위에 따른 대상군 설정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단일군만을 설정하는 설계는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의 모든 요인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시도하는 연구로서 본 실험에

<표 2-1> 연구설계 유형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유사실험설계 :	95(76.6)	22(84.6)	117(77.4)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	30(24.2)	1(3.8)	31(20.7)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51(41.1)	18(69.2)	69(45.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12(9.7)	3(11.5)	15(10.0)
모의대조군 전후설계	2(1.6)	-	2(1.3)
원시실험설계 :	26(20.9)	2(7.6)	28(18.7)
단일군 사후설계	4(3.2)	-	4(2.7)
단일군 전후설계	12(9.7)	1(3.8)	13(8.7)
시계열 전후설계	7(5.6)	1(3.8)	8(5.3)
전향적 코호트 전후설계	3(2.4)	-	3(2.0)
순수실험설계 :	3(2.4)	2(7.6)	5(3.4)
무작위통제군 사후실험설계	3(2.4)	1(3.8)	4(2.7)
복수통제군	-	1(3.8)	1(0.7)
계(%)	124(100.0)	26(100.0)	150(100.0)

착수하기 이전의 사전연구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설계이므로 학위논문으로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표본의 크기 및 추출방법

실험군의 크기는 21~30명인 논문이 30.7%, 11~20명이 23.3%, 31~40명이 20.0%으로 전체 논문의 74%가 11~40명을 대상자 수로 하였다<표 2-2>. 이를 학위별로 살펴보면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21~30명이 35.5%를 차지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31~40명이 38.5%으로 가장 많았다.

대조군의 크기는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21~30명인 논문이 26.0%으로 가장 많았으나 10명 이하인 논문이

7%으로 전체적으로 실험군보다 대조군의 크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21~30명이 28.2%, 10명 이하인 논문이 23.4%, 11~20명이 18.5%로서 30명 이하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경우가 70.1%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84.6%이 31명 이상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석사논문보다 표본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본이 크면 클수록 타당도가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이은옥 등, 1992), 실험연구의 경우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증력을 증가시키는 적절한 통계적 분석법을 모색하거나, 대상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통계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오차의 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표본의 크기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10	7(5.6)	29(23.4)	2(7.7)	2(7.7)	9(6.0)	21(20.7)
11~20	32(25.8)	23(18.5)	3(11.5)	2(7.7)	35(23.3)	25(16.7)
21~30	44(35.5)	35(28.2)	2(7.7)	4(15.4)	46(30.7)	39(26.0)
31~40	20(16.1)	17(13.7)	10(38.5)	9(34.6)	30(20.0)	26(17.3)
41~	21(17.0)	20(16.2)	9(34.6)	9(34.6)	30(20.0)	29(19.4)
계(%)	124(100.0)		26(100.0)		150(100.0)	

표본추출 방법을 확률 표출법, 비확률 표출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확률 표출법을 적용한 논문은 1.6%(2편)의 석사논문 뿐이었다. 그외의 논문은 대부분이 비확률 표출법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편의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임의표출법을 이용하였는데 실험연구에서는 대표성보다 표본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이은옥 등, 1992).

대상자 탈락율은 <표 2-3>에서와 같이 탈락율이 없었던 논문이 16.7%이었으며 10% 이하는 13.3%, 11-20%는 14.0%였다. 대상자 탈락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논문은 44.7%였는데, 학위별로 살펴보면 석사논문에서는 언급이 없는 논문이 47.6%였으며 탈락이 없었다고 한 논문은 19.4%였다. 박사학위논문도 30.7%에서는 탈락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탈락율이 31%이상인 논문은 15.4%이었다. 이는 박사학위논문이 석사논문보다 실험설계의 설계와 처치과정이 복잡적이고 처치 및 자료수집 기간이 길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탈락은 표본의 동질성을 위협하므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군에서의 탈락율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 특성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언급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3> 대상자 탈락율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없음	24(19.4)	1(5.6)	25(16.7)
~10%	16(12.9)	4(15.4)	20(13.3)
11~20%	16(12.9)	5(19.2)	21(14.0)
21~30%	7(5.6)	4(15.4)	11(7.3)
31%~	2(1.6)	4(15.4)	6(4.0)
언급없음	59(47.6)	8(30.7)	67(44.7)
계(%)	124(100.0)	26(100.0)	150(100.0)

(4)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대부분(81.6%)이 한 논문당 평균 2가지의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평균 3가지의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간호관련 학술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두가지의 상호보완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9.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오가실 등(1992)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했지만, 본

<표 2-4> 자료수집 방법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생리적측정법	64(29.8)	20(27.8)	84(29.3)
사회심리측정법	50(23.3)	20(27.8)	70(24.4)
관찰법	41(19.1)	12(16.7)	53(18.5)
자가면접법	6(2.8)	3(4.2)	9(3.1)
보고식 질문지법	54(25.1)	17(23.6)	71(24.7)
계(%)	215(100.0)	72(100.0)	287(100.0)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실험논문만을 선정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수집방법을 생리적 측정법, 사회심리 측정법, 관찰법, 자가면접법, 보고식 질문지로 분류하여 본 결과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리적측정법이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사회심리 측정법(24.4%)과 보고식 질문지(24.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생리적 측정법이 29.8%,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생리적 측정법과 사회심리 측정법이 각각 27.8%를 차지하였다. 이는 강윤희 등(1980)이 1970~79년 학회지 분석에서 사회심리측정법(24.2%), 김혜경(1980)의 연구에서 질문지법(56.0%), 김현수(1983)의 연구에서 질문지법(56.2%), 박성애(1992)가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중 면접법(45.4%), 박사논문중 사회심리측정법(28.6%)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생리적 측정법, 사회심리측정법, 보고식 질문지법을 균등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이 학위논문이며 실험설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부터 실험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생리적 변화, 관찰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쪽으로의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객관성,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생리적 변수나 도구를 이용한 생리적 측정법이 가장 많았던 것이 주목되는바, 이것이 바로 비실험논문과 크게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리적 측정의 내용을 보면 맥박, 혈압 등 불안정한 생리적 변수를 본 것이 많았다. 또한 연구의 측정변수와 관련이 긴밀하지 않은 변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생리적 지표나 보다 정밀한 생리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수집 기간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기간이 1~2개월인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28.1%) 학위별로 보면 석사논문은 1~2개월이 가장 많았고(33.3%), 박사논문에서는 2~3개월이 가장 많았다(38.5%). 또한 박사논문에서 7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26.9%나 있어 전체적으로 석사논문보다 자료수집 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기간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4편 있었다.

<표 2-5> 자료수집 기간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1개월	33(27.5)	1(3.8)	24(23.3)
1~2개월	40(33.3)	41(3.8)	41(28.1)
2~3개월	19(15.8)	10(38.5)	29(19.9)
4~6개월	11(9.2)	2(7.7)	13(8.9)
7개월~	10(8.3)	7(26.9)	17(11.6)
계(%)	120(82.2)	26(100.0)	146(100.0)

실험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수와 성격을 살펴보면 <표 2-6>에서와 같이 석사논문은 평균 1.6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평균 3.4개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석사논문의 경우 생리적 도구가 29.3%, 외국도구의 수정·보완이 23.4%이었고,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외국에서 개발한 도구나 그 도구를 수정·보완해 사용한 경우가 42.3%, 외국에서 개발된 도

구를 그대로 사용한 예가 30.3%, 국내도구의 수정·보완이 20.2%의 순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국인의 문화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측정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개념의 도출과 도구개발의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2-6> 측정도구의 분류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표준화된 도구	5(2.4)	3(3.4)	8(2.7)
외국 도구	38(18.5)	27(30.3)	65(22.1)
외국도구의 수정보완	48(23.4)	11(12.4)	59(20.1)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35(14.0)	17(19.1)	52(17.7)
생리적 도구	60(29.3)	13(14.6)	73(24.8)
국내도구의 수정보완	19(9.3)	18(20.2)	37(12.6)
계(%)	205(100.0)	89(100.0)	294(100.0)

측정도구의 평가에 있어서 신뢰도를 제시한 경우는 전체 논문중 57.3%였으며, 석사논문에서 50.8%, 박사논문에서 88.5%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시간, 장소,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연구의 대상자 집단에게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29.0%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1편이 있다<표 2-7>.

측정오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를 어떤 차원에서 측정했는가하는 신뢰도 검정은 안정성, 동질성, 동등성

<표 2-7> 측정도구의 평가 유무와 종류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신뢰도	유	63(50.8)	23(88.5)	86(57.3)
	무	26(29.0)	1(3.8)	37(24.7)
	해당없음	25(20.2)	2(7.7)	27(18.0)
	계(%)	124(100.0)	26(100.0)	150(100.0)
내적일관성 :	α (Cronbach's Alpha)	59(84.3)	22(75.9)	81(81.9)
	반분법	2(2.9)	2(6.9)	4(4.0)
	K-R 20	3(4.3)	1(3.4)	4(4.0)
	효율성	r(Spearman Brown)	2(2.9)	2(6.9)
안정성	검사-재검사	4(5.7)	2(6.9)	6(6.1)
	계(%)	70(100.0)	29(100.0)	99(100.0)

에 촛점을 맞추어(Burns, 1992) 조사하였다. 신뢰도 검사 중에서 내적일관성(동질성)을 본 경우는 89.9%이었으며 효율성 및 안정성을 본 논문은 각각 4.0%, 6.1%이었다. Cronbach's Alpha를 이용해 동질성을 규명한 논문이 석박사 논문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며(84.3%, 75.9%), 그 밖에 반복법, K-R 20 검사도 사용되었다.

2) 자료 분석

(1)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은 <표 2-8>과 같이 94.0%(141편)가 모수통계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4.7%(7편)에서 모수와 비모수를 혼용하였으며, 비모수통계를 이용한 논문은 1.3%(2편)에 불과하였다.

<표 2-8> 통계분석 방법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t-test	100(37.0)	22(24.7)	122(34.0)
F-test	46(17.0)	20(22.5)	66(18.4)
X ² -test	67(24.8)	17(19.1)	84(23.4)
Pearson correlation	28(10.4)	14(15.7)	42(11.7)
ANCOVA	9(3.3)	4(4.5)	13(3.6)
Stepwise regression	7(2.6)	6(6.7)	13(3.6)
Frequency만	9(3.3)	-	9(2.5)
기 타	4(1.5)	6(6.7)	10(2.8)
계(%)	270(100.0)	89(100.0)	359(100.0)

모수검정은 검정하려는 변수가 모집단에서 정규분포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수통계의 이용도를 살펴보면 석사 논문은 편당 2.2개, 박사논문은 편당 3.4개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는데, t검정이 34.0%, X² 검정이 23.4%, F검정이 18.4%, Pearson 검정이 11.7%를 차지하였다. 학위별로 보면 석사논문은 t검정(37.8%), X²검정(24.8%), F검정(17.0%), Pearson검정(10.4%)의 순이었으며, 박사논문은 t검정(24.7%), F검정(22.5%), X²검정(19.1%), Pearson 검정(15.7%)의 순이었다. 이는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가 주를 이루었다는 조사결과(강윤희 등, 1980; 김현수, 1983; 김혜경, 1980) 보다는 추론통계의 이용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박성애(1992)의 학회지 연구 결과인 백분율(31.0%), t검정(21.9%), F검정(16.4%)에 비하여 t검정, X²검정, F검정(17.0%), Pearson상관관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학위논문의 통계분석이 일반 논문보다 추론통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설을 검정하는 연구의 특성상 X²-test, t-test, correlation, ANOVA, ANCOVA, multiple regression 등의 자료분석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 그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모수통계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전체 논문 중 9편이었는데 그중 Man Whitney-U., Wilcoxon Rank Sum, Sign-test, Kruskal-Wallis ANOVA, Friedman Way Analysis 등이 사용되었다.

(2) 내적 타당도

연구를 통해 얻고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내적타당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3변수의 개입, 성숙, 시험효과 등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고려하여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실험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외생변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적타당도에 위협이 있는 것으로 저자들의 판단 및 토론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보다 좋은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지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제 3변수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논문은 4.0%(6편)이었으며, 성숙은 16.7%(25편)이었다. 시차를 두지 않아서 시험효과의 가능성이 있는 논문은 36편(24.0%)이었으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3편(2.4%)이나 있었다.

(3) 외생변수의 통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결과의 해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설계의 효과 변량을 최대화 하고 외생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오차변량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은옥 등, 1992).

외생변수의 통제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표 2-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논문이 53.9%이었으며 제시가 없었던 논문은 32.1%이었다. 외생변수가 있을 때는 통계적인 기법(7.9%)에 의해 통제했으며 그밖에는 짝짓기(2.4%)나 반복측정설계(2.4%)등이 각각 사용되었다. 제시가 없었던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 32.1%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6.7%이었다.

〈표 2-9〉 외생변수의 통제방법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외생변수 없음	71(52.6)	18(60.0)	89(53.9)
통계적 통제	7(5.2)	6(20.0)	13(7.9)
제시없음	51(37.80)	2(6.7)	53(32.1)
기 타	6(4.4)	4(13.3)	10(6.1)
계(%)	135(100.0)	30(100.0)	165(100.0)

(4) 실험상황의 통제

독립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조건을 유사하게 만들어야만 연구 결과의 오차 변량을 극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시간, 자료수집 절차, 처치 내용등의 통제가 실험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보았다(표 2-10). 환경통제가 가장 잘된 연구는 실험실 연구이지만 이는 4.0%에 불과했으며, 유사환경이 86.7%, 동일 조건의 일정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9.3%이었다.

연구의 논지에 따라 준거변수는 자료가 수집되는 년도, 월, 계절, 요인 및 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석 논문의 시간 요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동일한 시기, 시간대에 자료를 수집한 논문이 24.7%이

었으며 동일한 시기, 시간이 다닌 논문은 4.0%으로서 논제의 특성상 시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논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논문이 시간 요인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 절차를 보면 연구자 한사람에 의해 실험처치와 종속변수를 측정된 논문이 23.3%였으며 다수인이나 실험처치와 자료수집자의 특성이 동일했던 논문이 65.3%로 전체 논문의 88.6%에서 자료수집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동일성이 없는 논문이 11.3%였으나 박사학위 논문은 2편(7.6%)에 불과했다.

측정자가 2인 이상이거나 여러명의 관찰자가 필요한 경우, 측정자나 관찰자 간의 신뢰도 계수를 제시해주는 것이 연구 결과 해석에 도움을 주므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측정자나 관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인 40편 예를 제외하고 측정자간의 신뢰도를 제시한 경우는 10.9%에 불과하였다(표 2-11).

처치자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위해 구체적인 처치 절차를 제시한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이 93.5%, 박사학위 논문이 96.2%로서 실험처치의 동질성 여부가 균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 실험상황 통제여부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환 경 : 자연환경(일정장소, 동일조건)	12(9.7)	2(7.7)	14(9.3)
자연환경(유사환경)	106(85.5)	24(92.3)	130(86.7)
실험실	6(4.8)	-	6(4.0)
시 간 :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간	30(24.2)	7(26.9)	37(24.7)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간아님	5(4.0)	1(3.8)	6(4.0)
해당없음	89(71.8)	18(69.2)	107(71.3)
자료수집 절차 : 한사람이 처치 및 종속변수의 측정	34(27.4)	1(3.8)	35(23.3)
다수인(자료수집자의 특성 동일)	75(60.5)	23(88.5)	98(65.3)
다수인(자료수집자 동일성 없음)	2(1.6)	1(3.8)	3(2.0)
자료 제시 없음	13(10.5)	1(3.8)	14(9.3)
균일한 처치내용 : 구체적 처치 절차 있음	116(93.5)	25(96.2)	141(94.0)
구체적 처치 절차 없음	8(6.5)	1(3.8)	9(6.0)
계(%)	124(100.0)	26(100.0)	150(100.0)

〈표 2-11〉 측정자간의 신뢰도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유	10(11.4)	2(9.1)	12(10.9)
무	78(88.6)	20(90.9)	98(89.1)
계(%)	88(100.0)	22(100.0)	110(100.0)

3) 문제진술 및 결과

(1) 문제진술 및 가설 설정

연구의 수준에 따라 문제진술이나 가설이 설정된다. 문제진술이 연구하는 현상을 서술하는 것임에 반해 가설은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관련 또는 귀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진술을 한 경우가 석사논문은 16.7%에 불과하였으며, 박사학위논문은 42.1%에서 문제진술이 있었는데 진술의 형태는 의문형의 서술이 많았다. 이는 박성애(1992)의 연구중 박사학위 논문의 32.2%, 학회지 논문의 13.3%보다 높은 비율

이다.

가설 설정의 유무를 보면 박사학위 논문은 모두 연구 가설을 설정했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대안가설이 58.9%, 영가설이 8.1%였다(표 2-12). 석사논문의 경우 가설이 없는 경우가 33.1%로서 가설이 없는 논문이 6%였다는 간호관련 학술지를 분석한 오가실등(1992)의 연구 결과보다는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영가설은 8.1%로써 영가설의 감소 경향을 보고한 박성애(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으로부터 연구결과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할 가능성을 극소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의 설정이 강화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결과 및 제언

가설이 설정된 논문의 주가설이 지지된 논문은 59.7%였으며 부분적으로 지지된 논문은 32.8%로써 전체 논문의 92.5%에서 가설이 지지되었다(표 2-13). 반면

〈표 2-12〉 문제진술과 가설의 유무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문제진술 : 서술형	9(7.4)	3(10.5)	12(7.9)
의문형	12(9.3)	8(31.6)	20(12.6)
무	103(83.3)	15(57.9)	118(79.5)
가설유무 : 대안가설	73(58.9)	26(100.0)	99(66.0)
영가설	10(8.1)	-	10(6.7)
무	41(33.1)	-	41(27.3)
계(%)	124(100.0)	26(100.0)	150(100.0)

〈표 2-13〉 연구결과의 지지 비율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주가설의 지지	64(59.3)	16(61.5)	80(59.7)
생리적 도구 지지	15(13.9)	4(15.4)	19(14.2)
생리적 도구 지지못함	12(11.1)	2(7.7)	14(10.4)
생리적 도구 해당없음	37(34.3)	10(38.5)	47(35.1)
주가설의 부분적 지지	35(32.4)	9(34.6)	44(32.8)
생리적 도구 지지	10(9.3)	2(7.7)	12(9.0)
생리적 도구 부분적지지	2(1.9)	1(3.8)	3(2.2)
생리적 도구 지지못함	5(4.6)	2(7.7)	7(5.2)
생리적 도구 해당없음	18(16.7)	4(15.4)	22(16.4)
주가설의 기각	9(8.3)	1(3.8)	10(7.5)
계(%)	108(100.0)	26(100.0)	134(100.0)

에 추가설이 기각된 논문은 7.5%였는데 그중 석사논문은 8.3%, 박사논문은 3.8%였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생리적 측정으로 보완되고 그 결과가 지지될 때 연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언이 제시된 논문은 82.7%이었으며, 학위별로는 박사논문이 96.2%, 석사논문의 74.2%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향후 제언한 바대로의 연구가 수행되었는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며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구 영역

실험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주제 및 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 연구의 유용성,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종류를 조사 하였다.

(1) 연구의 대상자

연구의 대상자를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3편(8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편(13.3%)이었다(표 3-1). 학위별로 구분한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환자중에서는 성인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 중에서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다른 조사 결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은 69.2%, 48.6%, 32.7%(김현수, 김영경, 오가실 등)등으로 본연구에서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 실험연구의 주제가 대부분 간호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유용성

연구의 결과가 간호학문 분야의 어느 영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교육, 실무 및 행정의 세부부분으로 분류해 본 결과 실무영역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 94.7%(142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수(1983)의 52.

〈표 3-1〉 연구의 대상자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환 자	102(82.3)	21(80.8)	123(82.0)
아 동	5	2	7
성 인	82	18	100
임산부	15	1	16
일 반	16(12.9)	4(15.4)	20(13.3)
학 생	5	-	5
노 인	3	1	4
환자가족	8	3	11
기 타	6(4.8)	1(3.8)	4(2.7)
계(%)	124(100.0)	26(100.0)	150(100.0)

8%와 김영경(1992)이 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81.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부분이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시행한후 그 결과를 보고자 한 연구 설계가 주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요개념

독립변수의 주요 개념을 Meleis(1991)가 제안한 간호개념의 영역 분류-간호 대상자, 전환, 상호 작용, 간호 과정, 환경, 건강, 간호사, 간호 중재-로 구분한바 간호중재를 개념으로 한 논문이 92.6%(136편)로 주를

이루었으며, 상호작용이 2편, 환경이 5편이었다. 이는 간호사(26.3%), 간호대상자(20.7%), 간호중재(18.8%) 등으로 나타난 박성애(1992)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학위논문의 경우 바람직한 경향으로 사료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중재에 관한 실험연구가 7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96.7%(145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가 3편, 3개인 경우는 2편이었다. 간호중재의 주요개념은 〈표 3-2〉와 같이 간호치료,

〈표 3-2〉 간호중재의 주요개념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간호처치	16(14.5)	3(11.5)	20(14.7)
투여 시기 및 방법	6	1	7
호흡근훈련(심호흡)	6	1	7
기타(흡인, 삭모, 배액, 체위, 세균 배양, 요도구 간호)	5	1	6
물리치료	10(9.1)	4(15.4)	14(10.3)
운 동	3	2	5
냉·온요법	4	2	6
맞사지	3	-	3
의사소통	2(1.8)	1(3.8)	3(2.2)
주장훈련	2	-	2
집단회상	-	1	1
정보제공 및 교육	46(41.8)	10(38.5)	56(41.2)
정보제공 및 교육(환자)	34	6	40
영적간호교육	3	-	3
배우자, 부모교육	1	1	2
방법별 교육	8	3	11
전환요법	20(18.2)	1(3.8)	21(15.4)
이완술	13	1	14
음악요법	4	-	4
기타(놀이, 그림독서)	3	-	3
지 지	16(14.5)	7(26.9)	23(16.9)
지시간호	6	4	10
사회적지지	3	2	5
접 촉	7	1	8
계(%)	110(100.0)	26(100.0)	136(100.0)

물리치료, 의사소통, 정보제공 및 교육, 전환요법과 지 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범, 시청각, 유인물을 이용한 교육, 영적간호교육, 배우자나 환자 부모교육, 및 방법에 따른 교육의 효과 등을 보고자 한 논문이 41.2%(56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시간호, 사회적 지지, 접촉 등의 지지를 제공한 논문이 16.9%(23편), 이완술, 음악요법, 놀이 그림 독서 등의 전환 요법을 적용한 논문이 15.4%(21편), 약물 투여 및 방법, 호흡근 훈련 등의 간호 치료를 적용한 논문이 14.7%(20편)이었다. 또한 운동, 냉온요법, 맞사지 등의 물리치료를 적용한 논문은 10.3%(14편)이었다. 이는 박성애(1992)의 지지 및 이완이 25.9%, 간호 치료를 적용한 논문이 24.7%,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 논문이

22.2%로 나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 및 교육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오가실 등(1992)의 조사 결과는 간호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으며 지시간호의 비율은 낮았다. 이를 학위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한 논문이 각각 41.8%와 38.5%로 가장 많았다. 전환요법은 석사논문에서 18.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한 반면에 지지를 제공한 논문은 석사논문보다 박사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간호중재의 가장 많은 부분이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지, 물리치료, 간호처치, 전환요법 등이 비교적 고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를 하나의 과학적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

문적 행위로서의 간호처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Meleis, 1991 ; Snyder, 1985 ; 김명자, 1992).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시행한후 그 결과를 검정해 나감으로써 독자적 간호중재인 간호처방 방안이 정립되고 더 나아가 간호

지식체가 확장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4) 종속 변수

인간의 반응형태를 기술한 NANDA의 기준(NANDA Taxonomy I, 1991)에 따라 종속변수의 개념을 교환

〈표 3-3〉 반응형태(NANDA Taxonomy I)에 의한 종속변수의 분류

교 환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43(28.9)	9(30)	52(29.1)
	회 복	8	2	10
	대 사	13	2	15
	심폐기능	5	2	7
	감염(세균)	9	0	9
	육 창	1	0	1
	성장발달	0	1	1
	뇌 압	2	1	3
	활력증후	5	1	6
의사소통	주장행동	2(1.3)	0	2(1.1)
관 계		7(4.7)	1(3.3)	8(4.5)
	가족지지	0	1	1
	애 착	7	0	7
가 치		0	0	0
선 택		15(10.1)	7(23.3)	22(12.3)
	스트레스	2	3	5
	건강행위	4	1	5
	건강신념	2	0	2
	역할이행	7	3	10
움직임		8(5.4)	4(13.3)	12(6.7)
	수 면	2	1	3
	자가간호	5	3	8
	활 동	1	0	1
인 지		6(4.0)	0	6(3.4)
	자존감	2	0	2
	삶의질	1	0	1
	신체상	3	0	3
압	지식(인식, 태도, 요구)	10(6.7)	0	10(5.6)
느 낌		58(39.0)	9(30.0)	67(37.4)
	불 안	42	2	44
	동 통(불편감, 안위)	16	2	18
	우 울	0	3	3
	기 분	2	1	3
	공 포	0	1	1
	계(%)	149(100)	30(100)	179(100%)

(exchanging), 의사소통(communicating), 관계(re-lating), 가치(valuing), 선택(choosing), 움직임(moving), 인지, 앎(knowing), 느낌(feeling)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3-3). 불안, 동통, 우울 등의 느낌을 종속변수로 다룬 논문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복, 대사, 심폐기능, 감염, 활력증후 등의 교환이 29.1%, 스트레스, 건강행위, 역할이행 등의 선택이 12.3%였다. 반면에 가치를 종속 변수로 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이를 학위별로 세분화 하면 석사논문에서는 느낌을 종속변수로 한 논문이 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불안이 28.2% 동통이 10.7%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사, 감염, 회복 등이 속해 있는 교환이 28.9% 이었으며 선택이 10.1%, 앎이 6.7%의 순이었다. 박사논문에서는 교환과 느낌이 각각 30%를 차지하였으며 선택(23.3%), 움직임(13.3%)의 순위이었다.

본 연구와 분류 기준이 같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타 논문 분류의 성적을 보면 생리반응, 행위변화, 불안, 스트레스 등의 주요 종속 변수로 제시되고 있어(김영경, 오가실 등) 본 연구의 종속변수 개념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간호학의 연구는 간호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 증진하도록 돕는 간호실무의 본질과 형태를 이해하게 하고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바람직한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실험연구는 간호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 수준의 이론 개발에 기본이 되는바 이러한 연구의 방향설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간호계 대학원과정의 개설된 1962년부터 1991년 8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중에서 수집이 가능한 실험논문을 전수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간호학과에 대학원과정이 설치된 이후 30년간의 학위 논문은 1967편이었으며 그중 실험논문은 170편으로 전체 논문의 8.6%였다. 학위별로는 석사학위 논문의 7.5%, 박사학위 논문의 34.1%가 실험논문이었다. 이들 중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석사 124편, 박사 26편 총 150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의 유형은 유사실험 설계가 주를 이루었다.
2. 대상자 선정에 확률표출법을 적용한 논문은 2편의 석사학위 논문이었으며, 모두 임의표출을 이용해 표집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

며, 표본의 크기는 대부분 21~30명이었다.

3. 실험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유형은 생리적측정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사회심리측정법과 보고식 질문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2개월이 가장 많았다.

4. 박사논문은 26에 전부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했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가설이 58.9%, 영가설이 8.1%였으며, 전체 논문의 92.5%에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5. 자료의 분석방법은 주로 모수통계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t*검정, X^2 검정, *F*검정, Pearson 검정 순이었다.

6. 환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간호중재는 정보 및 교육, 지지, 전환요법, 간호처치의 순위를 보였다.

7. 불안, 동통, 우울 등의 느낌 반응형태가 종속변수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복, 대사, 심폐기능, 감염, 활력증후 등의 교환 반응형태와 스트레스, 건강행위, 역할이행 등의 선택 반응형태의 순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간호처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에는 여러 제약이 다르므로 선행연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2) 실험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생리적 도구의 개발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 방용자, 한윤복(1990). 간호연구 방법론. 서울 : 수문사.
- 강윤희, 이숙자(1980). 전문지를 통해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3), 54-59.
- 고옥자, 김상혜, 김희경, 박현옥, 이금재, 이영숙(1991). 간호학계 석·박사학위논문 목록집(1960-1991. 8). 서울 : 현문사.
- 김명자(1992). 인지적 간호중재, 대한간호학회지, 22(3), 337-351.
- 김수지(1988). 간호연구의 방향, 대한간호학회지, 18(2), 128-134.
- 김영경(1993).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지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1, 39-60.

분 석 논 문

- 김현수(1983). 일부 학술지로 본 간호연구의 연차적 비교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1980). 간호계 연구 경향에 관한 일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한교육협회의(1990). 간호학과 평가 종합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 박성애(1989). 간호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울대학교 주최 간호연구방법 단기강좌, 1-28.
- 박성애(1992). 간호연구분석을 통한 이론의 발전방향, 서울대학주최 간호학 이론과 연구의 전망, 37-58.
- 오가실(1987). 간호연구의 학문성과 실용성,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신재석화운영위원회 엮음. 서울: 대한간호협회.
- 오가실, 신희선, 김희순(1992).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현황과 문제. 대한간호, 31(3), 76-87.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1991).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 분석. 서울: 수문사.
- 조결자(1977). 한국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통계적 관찰, 경희간호연구지, 1(1), 49-58.
- 홍근표, 김매자, 김명자, 이향련, 이경자, 박오장, 강현숙, 임난영, 김정인, 최남희, 이선옥, 박지원, 조동숙(1983).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2(3), 115-30.
- Buckwalter, K.C. & Mase, M.L.(1989). True experimental design, In P.J. Brink & M.J. Wood, *Advanced design in nursing research*,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 Burn, N., Grove, S.(1987). *The Practice of Nursing Research*, Philadelphia : W.B. Saunders.
- Kim, M.J., McFarland, G.K. & McLane, A.M.(1991). *Pocket Guide to Nursing Diagnoses*, St. Louis : C.V. Mosby Co..
- Meleis, A.I.(1991). *Theoretical Nursing*(2nd ed.),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
- Polit, D.F. & Hungler, B.P.(1985). *Essentials of Nursing Research*,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
- Synder, M.(1985).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s*, N.Y. : John Wiley & Sons.
- 강현수(1985). 재활 강화교육이 편마비환자의 자가간호 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권영숙(1988). 약물요법에 관한 교육이 암환자의 지식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경숙(1991). Circadian Rhythm을 적용한 항암제 투여 시기가 오심구토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경은(1991). 예비적 감각 정보제공이 위 내시경검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금순(1990). 심도자 검사에 관한 사전간호 정보제공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기순(1988). 절진적 근육이완요법이 항암 화학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도 및 오심구토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남숙(1991). 절진적 근육이완요법이 혈액투석환자의 불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매자(1987). 호흡근 훈련이 호흡근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명숙(1984). 계획된 수술전 환자교육이 수술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명자(1985). 지시간호가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명은(1991). 건강계약이 편마비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성미(1989). 수술전 교육이 수술후 환자의 신체 회복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성재(1984). 척추 마취 환자에게 행한 수술실에서의 심리간호가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소영(1982). 저 체중아의 위관 영양시 체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숙정(1981). 중환자실 의식장애환자의 호산성 백혈구의 주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순애(1987). 이완술 정보제공이 심도자 검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순임(1981). 일부 함암제가 백신의 적출 장관 운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애숙(1989). 불면 호소환자에 대한 근이완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연숙(1986). 지지적 접촉과 정보제공이 입원환자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옥정(1987). 편도선 절제술 환자의 수술전 그림색칠 놀이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옥진(1980). 사람 인후에서 분리된 혐기성 세균,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원옥(1975). 산후 유방마싸지 및 유즙압출이 수유 및 유즙분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일원(1986). 정맥주사용 수액의 개방후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도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정아(1990). 지지간호가 균요통환자의 우울, 기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정인(1985). 이완요법이 정신질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정자(1991). 이완술이 노인의 불안, 수면장애,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조자(1971). 수술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중혜(1991). 인센티브 스피로메타 심호흡 방법이 폐환기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희(1985). 지지적 접촉과 환자교육이 수술후 동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춘희(1984). Succinylcholine이 심박수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태경(1984). 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리(1986). 냉찜질이 수술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혜령(1985). 불안 감소로 인한 간호중재로서의 Touch가 입원환자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효빈(1989). 영적 간호중재가 암환자의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순(1989). 정서 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남혜경(1988). 회음부 불편감 완화를 위한 냉요법과 온요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도복늬(1983). 계획된 수술전 환자교육이 대응양식에 따라 회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문영숙(1980).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금자(1985). 치료적 접촉이 초산부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명숙(1990). 복부수술환자의 수술후 정상체온 회복을 위한 열요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미란(1990). 간호정보 제공이 근육주사시 환자의 불안 반응과 동통인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미화(1988). 이완술 교육이 방광경검사 환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미희(1983). 질병화 수술이 성인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상연(1987).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송자(1983). 음악을 이용한 청각자극의 통증 경감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영선(1988). 지지적간호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오장(1985). 사회적 지지가 당뇨병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옥순(1986). 계속적 보행상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 환

- 자교육이 투석관리 지식과 자가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은숙(1983). 약에 대한 환자교육이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약에 대한 인지 및 약복용 양상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의숙(1988). 만성간질환자에 있어서 간직이의 교육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정숙(1985). 이완술 사용이 수술후 동통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숙(1984). 신생아 돌보기 활동이 산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귀숙(1982). Ethanol 급성투여가 혈압과 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배행자(1985). 초임부 배우자의 산전교육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백남희(1986). 백내장 적출술전 간호지식 정보제공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사해경(1990). 이완술 사용이 위내시경 검사 환자의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성순(1991). 건강 폐하측위 및 흉부 타진요법이 의식지하 환자의 폐가소근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소의숙(1991). 호스피스 간호가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손복희(1984). 모자동실 동지가 산모가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정래(1991). 피부가 온요법이 수술후 저체온 환자의 정상체온 회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손행미(1990). 슬라이드 테잎을 이용한 사전 간호정보 제공이 지식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지호(1991). 입원 아동이 주사공포감을 위한 필름 모델기법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 측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재신(1985). 노인의 근관절 운동이 자가간호활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향제(1980). 입원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의 불안과 간호에 관한 실험적연구-정보제공과 대화 중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경애(1988). 당뇨병 환자의 정지성 자전거 운동이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나옥(1986). 시범교육이 석고 붕대 제거시 어린이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황란(1985).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지지 강화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진향(1990). 이완술이 고등학교 학생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여옥남(1989). 산전분만에 대한 교육이 분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여정희(1987). Lamaze세법 산전 교육이 분만동통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오정화(1975). 수술전 환자교육이 회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왕임순(1986). 지지적 간호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지각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숙자(1991). 정신분열증 환자의 퇴원교육이 퇴원후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연자(1991). 냉좌욕과 온좌욕에 따른 산후회음부 불편감 완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지수(1986). 기관내 흡인 전후 산소공급량과 두개강내압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관한 임상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원숙(1991). 흉부타격 및 진동방법이 동맥혈 산소 분압 및 분비물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은숙(1987). 사전 간호정보제공이 뇌혈관 조영술 검사시 환자의 불안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강이(1977). Alcohol의 수중 소독약품의 피부소독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명숙(1989). 접촉에 의한 정보제공이 위내시경환자의 불안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문임(1989). 음악요법이 정신질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미경(1981).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

- 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미경(1983). 정보제공이 자궁적출술 환자의 상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1986). 수술전 놀이교육이 간호활동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미애(1989). 수술전 산모가 피부의 세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상년(1991). 맨손 체조 프로그램이 농촌 노인의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소우(1982). 계획된 간호정보가 수면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개심술환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안라(1985). 이완술 정보제공이 (심장판막 풍선확장술 시술)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유미(1990). 무균적 객담흡아 간호 중재에 따른 기관절개술 환자의 호흡기계 병원감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자(1984). 수술전 교육이 수술환아의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은자(1988). 계획된 당뇨교육이 환자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인선(1985). 복부수술 환자에 대한 규칙적 심호흡 운동이 폐환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인순(1990).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 행동과 자아 존중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인옥(1991). 가정간호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연구-정신과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인자(1965). 조직 배양법에 의한 세균 및 인식균의 배양실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자형(1985). 감각자극이 저 체중아의 조기 성장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화(1984). 분만과정시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1982). 정보제공이 입원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향련(1985).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건강계약이 고혈압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현주(1990).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건강계약이 고혈압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현주(1990). 이완 수술로서의 단전호흡 교육의 단기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혜란(1990).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요법이 당대사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화인(1988). 수술환자에서 심호흡운동이 수술후 폐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임은숙(1985). 어머니와 신생아의 조기피부접촉이 모성 유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성욱(1986). 치료적 접촉이 수술전 환자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장영숙(1987). 모아 별실제도에서의 모유수유와 산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전경옥(1987). 간호 정보 제공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군 감염 환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명희(1985). 계획된 간호 중재가 개심술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성주(1985). 하지골절 환자 입원시 교육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전정이(1991). 조깅프로그램이 제2형 당뇨병환자의 대사 및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남연(1989). 당뇨교육이 환자의 당뇨병에 대한 지식 및 가족 지지 인지도와 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명실(1983). 정보 제공이 환자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문숙(1984). 계획된 보건의료정보가 주민의 건강 질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순화(1990). 간호사의 영적간호 교육이 환자의 영적 요

- 구 인식과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승교(1985). 간호정보 제공이 중환자 가족의 요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애경(1988). 당뇨병 환자의 건강신념과 이행에 관한 식이요법 소책자 제공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영란(1984). 체위 변동이 두개내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진현(1984). 계획된 간호정보가 수술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추자(1985). 지지적 집단 간호가 하지골절 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경미(1991). 심장병 환자부모 교육이 환아모의 불안 및 지식정도에 미치는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영숙(1988). 산모지지를 위한 배우자 교육이 산후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용애(1983). Rebreathing Tube와 Incentive Spirometer를 사용한 심호흡 훈련이 복부수술 환자의 폐환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원분(1977). 분만과경중 산모체위변경에 따른 간호 효과의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정호(1984). 출산교육이 간호학생의 출산 및 모성행위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혜진(1988). 수술전 환자에 있어 수술실 간호원 방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화자(1988). 정보제공방법이 자궁적출술 환자의 지식과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지연옥(1989).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지혜련(1983). Catheter 유치환자의 요로 감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차은주(1986). 아버지의 사전교육이 신생아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차정희(1988). 위내시경 검사전 간호정보가 불안감소와 생리적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채선옥(1984). 정형외과 환자의 욕창예방을 위한 실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채현주(1986). 정서적 지지가 고혈압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미애(1987). 광범위 자궁적출술후 여러가지 예방적 비액 방법이 열성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미혜(1988). 진강계약이 당뇨병 환자의 환자역할 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연자(1987). 지능적 의사소통강화를 통한 가족 접근이 정신분열증 환자회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영희(1984). 지지적인 간호중재가 가족지지행위와 환자역할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영희(1982). 이동감자의 오염상태와 일부 소독액의 항균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최인희(1986). 모아 조기접촉강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최정옥(1987). 뇌실 외도관술 환자의 측위시 목과 슬관절 굴곡 정도에 따른 두개강내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현자(1986). 벤슨의 긴장이완법과 GSR 2 생체 회환이완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하구자(1991). 유치도뇨관 삽입환자의 외요도구 간호가 요로감염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하선옥(1984). 장기간 체력단련이 인체의 수분 및 전해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하양숙(1991).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경순(1988). 지지적 간호중재가 자가간호 이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영숙(1990). 당뇨교육에 있어 조력자 치료원칙 적용이 환자의 자아상 수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한혜실(1988). 분만시 호흡조절과 산부의 불안 및 진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혜자(1986). 이완술이 산부인과 환자의 수술후 동통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허명선(1990). 간호정보 제공이 환자의 건강신념과 환자의 역할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홍명선(1987). 음악요법을 이용한 간호중재가 정신질 환자의 행동 및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미순(1989). 음악요법이 용이 수술환자의 동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애란(1977). 수라민이 환귀의 간미토콘드리아의 산화인산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Kim, Myung Ja · Lee Myung Sun**
Lee, Mi Hyoung*** · Lee, Hwa I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cribe and analyze experimental studies conducted in graduates nursing degree. Of 170 experimental studies conducted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between 1962 and August 1991, 150 studies were available, including 124 master's and 26 doctoral theses.

This study examine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tailed research methods using percenti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st of the studies adopted a quasi-experimental design.

2. The subjects of the studies were chosen by convenience sampling except for two studies whose subjects were drawn by randomization. Studies comparing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in the highest proportion and the most frequent sample sizes of each group were 21 to 30 for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3. As to measurement, physiological measures were most frequent followed by psychosociological measures and active report questionnaires. Each study, on average, adopted two kind of measurement tools. Studies in which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of 1~2 months were in the highest proportion.

4. All doctoral theses and 67.0% of master's theses examined specific research hypotheses. Of these studies, the results of 92.5% supported the hypotheses.

5. Parametric statistics were the major analytical methods. In particular, *t*-test was us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Chi square, F-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6. Patients were the most frequent study subjects. Frequent nursing interventions were information and education followed by support, distraction, and nursing treatments.

7. With regards to the dependent variables, "feelings" such as anxiety, pain, and depression were most frequent. In addition, "exchanging" such as restoring, metabolism, cardiopulmonary function, infection and vital signs were adopt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in 29.1% of the studies examined, while 12.3% of the studies selected "choosing" such as stress, health behavior, or role performance.

* School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 Soo Won Woman's College
***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